

2019년 11월 1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속 매물소화 이어져 월그린 부츠 +5.08%, 보잉 +4.69%

### 미 증시 변화 요인: 밸류에이션 부담 속 개별 종목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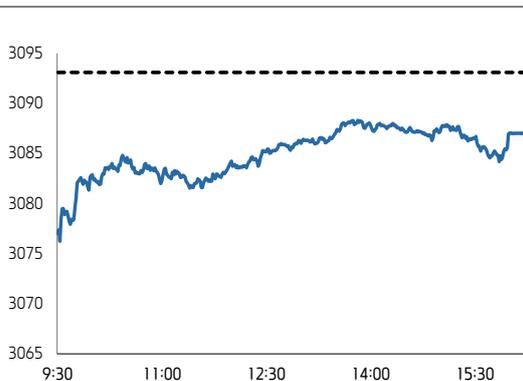
미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속에 차익매물 출회되며 하락 출발. 이후 보잉(+4.69%)이 호재성 재료를 통해 급등하자 다우가 상승 하는 등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 등락. 대체로 미-중 정상회담을 기다리며 매물 소화과정이 이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보험권 등락속 혼조 마감(다우 +0.04%, 나스닥 -0.13%, S&P500 -0.20%, 러셀 2000 -0.26%)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지난 금요일 89%의 S&P500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그 중 75%의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 했다고 발표. 이는 지난 4 개 분기 평균과 같은 수준. 이런 가운데 3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 감소해 3 개분기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 업종별로 보면 유틸리티(yoy +10.1%), 헬스케어(yoy +8.8%), 부동산(yoy +6.3%) 등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된 반면, 에너지(yoy -39.4%), 소재(yoy -10.6%)를 비롯해 IT(yoy -5.7%), 금융(yoy-3.2%)가 부진.

한편, 팩트셋은 4 분기 S&P500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1% 둔화될 것으로 전망. 이러한 부진은 시간이 지나며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런 가운데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옴. 이로 인해 S&P500 기업들의 12 개월 Fwd PER 이 17.4 배를 기록해 10 년평균 (14.9 배)는 물론 5 년평균(16.6 배)를 크게 상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 마진율 또한 지난해 3 분기(12.1%) 보다 부진한 11.5%를 기록. 문제는 이러한 마진율 개선요인이 앞으로 많지 않다는 점.

결국 미 증시는 기업이익 개선 기대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무역협상, 연준의 금리인하 등에 의해 강세를 이어감.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가 멈추고,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상승에 따른 매물 소화 과정을 보임. 특히 개별 종목들의 변화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종목 장세를 보임.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코스피	2,124.09	-0.61	홍콩항셍	26,926.55	-2.62
코스닥	661.37	-0.49	영국	7,328.54	-0.42
DOW	27,691.49	+0.04	독일	13,198.37	-0.23
NASDAQ	8,464.28	-0.13	프랑스	5,893.82	+0.07
S&P 500	3,087.01	-0.20	스페인	9,388.50	-0.06
상하이종합	2,909.98	-1.83	그리스	855.92	-1.01
일본	23,331.84	-0.26	이탈리아	23,489.93	-0.1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개별 이슈에 따라 등락이 엇갈림

윌그린 부츠(+5.08%)는 KKR(+0.38%)이 인수 의사를 발표한 데 힘입어 급등 했다. 보잉(+4.69%)은 장중에 보잉 737맥스 기종을 12월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고, 내년 1월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자 급등했다. 노드스트롬(+2.13%), 갭(+2.52%)은 중국 광군제 매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 했다. 비자(+0.32%), 마스터카드(+0.77%), 페이팔(+1.23%) 등 카드 회사들도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 기대가 높아지자 상승했다. 테슬라(+2.36%)는 제프리스가 실적 개선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300달러→400달러)하자 강세를 보였다. 애플(+0.79%)은 2023년 VR안경 출시 소식에 상승 했다.

넥스트 큐어(-52.93%)는 표적 항암제 관련 임상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 발표한 이후 급락했다. 이 여파로 그동안 상승을 이어왔던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심리가 위축돼 길리어드사이언스(-1.13%), 알렉시온(-1.61%)을 비롯해 존슨앤존슨(-0.77%), 머크(-0.37%) 등이 부진했다. 퀄컴(-2.33%)은 모건스탠리가 긍정적인 중국과의 무역거래 및 5G관련 특허로 유입으로 강한 상승을 이어왔으나,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분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유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한 이후 하락했다. 마이크론(-1.97%)도 동반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33%	대형 가치주 ETF(IVE)	-0.27%
에너지섹터 ETF(OIH)	-0.66%	중형 가치주 ETF(IWS)	-0.26%
소매업체 ETF(XRT)	-0.07%	소형 가치주 ETF(IWN)	-0.34%
금융섹터 ETF(XLF)	-0.27%	대형 성장주 ETF(VUG)	+0.03%
기술섹터 ETF(XLK)	+0.05%	중형 성장주 ETF(IWP)	+0.1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0%	소형 성장주 ETF(IWO)	-0.05%
인터넷업체 ETF(FDN)	-0.31%	배당주 ETF(DVY)	-0.50%
리츠업체 ETF(XLRE)	+0.1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37%
주택건설업체 ETF(XHB)	+0.8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59%
바이오섹터 ETF(IBB)	-0.29%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41%	하이일드 ETF(JNK)	-0.08%
곡물 ETF(DBA)	-0.31%	물가연동채 ETF(TIP)	+0.05%
반도체 ETF(SMH)	-0.41%	Long/short ETF(BTAL)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43.65	-0.56%	-1.66%	+3.77%
소재	376.99	-0.11%	+1.09%	+5.66%
산업재	688.92	+0.07%	+0.71%	+6.61%
경기소비재	951.46	-0.27%	-0.61%	+0.59%
필수소비재	622.74	-0.20%	+0.21%	+0.15%
헬스케어	1,095.63	-0.41%	+0.18%	+5.34%
금융	493.20	-0.26%	+1.26%	+7.25%
IT	1,510.51	+0.06%	+1.16%	+5.58%
커뮤니케이션	174.59	-0.39%	+0.37%	+3.97%
유틸리티	310.94	-0.68%	-3.13%	-3.50%
부동산	234.13	+0.22%	-2.43%	-3.6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매물 소화 과정 속 반등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71%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924 계약 순매수하자 1.15pt 상승한 282.3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4.9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금요일 한국 증시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정책 국장이 중국과 관세 철회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자 하락 전환 했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한국 증시는 트럼프도 중국과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한 점, 홍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백악관은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면 일부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중국의 발표와 유사하게 언급해 여전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는 이어갔다.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발표를 보면 협상 과정에서 관세 철회를 논의했던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잘 돼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다면 관세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일부 관세 철회 또는 12 월 부과될 예정인 관세 연기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관련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증목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다면 관세 철회에 대한 기대가 재차 부각되며 강세를 보일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광군제에서 매출이 2,684 억 위안(yoy +25.7%)을 기록하는 등 급증해 중국 소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 중국 수출 증가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연말 쇼핑시즌 또한 기대가 높다. 전미 소매협회는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해 5 년 평균(yoy +3.7%)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소비력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점을 감안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이후 지수 상승 기대 또한 높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영국 GDP 성장률 전년 대비 1.0% 증가

영국의 3 분기 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해 지난 분기(QoQ -0.2%)를 상회했다. 다만, 예상치(0.4%)는 소폭 하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성장에 그쳤다.

10 월 영국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둔화돼 지난달 발표치(mom -0.7%)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예상치(mom -0.1%) 보다는 부진했다.

10 월 중국 신규대출은 6,613 억 위안으로 지난달 발표치(1 조 6,900 억위안)나 예상(8 천억 위안)을 하회했다. 10 월 M2 증가율은 예상과 부합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파운드화 달러 대비 강세폭 확대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소폭 하락했다. 더불어 OPEC 사무총장이 내년 원유시장 상승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량을 더 줄일 필요가 없다는 발언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점, 미-중 무역협상에서 관세 철회가 논의 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 하락은 제한 되었다.

달러화는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여타 환율에 대해 소폭 약세를 보였다. 엔화와 스위스프랑은 홍콩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이날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으나 즉각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진 점이 달러 대비 강세 요인이었다. 역외 위안화는 홍콩 이슈로 달러 대비 0.3% 약세를 보였다.

채권 시장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휴장인 가운데 시간 외로 국채선물은 소폭 상승을 했다. 홍콩 이슈가 부각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자 시간 외 국채 선물은 제한적인 하락에 그쳤다.

금은 달러 약세 불구 여전히 무역협상 기대속 소폭 하락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홍콩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4%, 철근도 0.45%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86	-0.66	+0.57	Dollar Index	98.218	-0.14	+0.73
브렌트유	62.18	-0.53	+0.08	EUR/USD	1.1032	+0.13	-0.86
금	1,457.10	-0.40	-3.57	USD/JPY	109.05	-0.19	+0.43
은	16,802	-0.12	-7.00	GBP/USD	1.2852	+0.61	-0.25
알루미늄	1,779.00	-1.58	-1.98	USD/CHF	0.9934	-0.40	+0.56
전기동	5,878.50	-0.77	+0.03	AUD/USD	0.6851	-0.17	-0.48
아연	2,496.50	+0.58	-1.67	USD/CAD	1.3227	-0.01	+0.58
옥수수	373.25	-1.06	-2.61	USD/BRL	4.1481	-0.47	+3.25
밀	505.75	-0.88	-0.78	USD/CNH	7.0066	+0.29	-0.38
대두	917.00	-1.50	-2.24	USD/KRW	1166.80	+0.80	+0.66
커피	109.45	-3.01	+2.05	USD/KRW NDF1M	1164.90	+0.59	+0.3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942	휴장		스페인	0.427	+4.30	+12.10
한국	1.797	-0.30	-4.00	포르투갈	0.351	+3.10	+12.10
일본	-0.063	-1.30	+11.30	그리스	1.340	+3.60	+16.20
독일	-0.245	+1.80	+10.60	이탈리아	1.259	+6.90	+26.50